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도자료</h1>	2016. 1. 13(수)	
		작성 문의	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총무과장 이희은 주무관 나홍환 (Tel. 044-200-2781)
엠바고	14시 30분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국무총리실 직원 110여명, 혈액 부족사태에 ‘단체 헌혈’ 나서

- 황교안 총리, 혈액부족 보고받고 ‘총리실이 적극 동참’ 주문
 - 정부 중앙부처로서는 처음, 타 부처 확산 계기될 듯
-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단체로 참여하였다.
- 이는 황교안 총리가 최근 국내 혈액 재고량*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총리실이 단체헌혈에 적극 나서주길 주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.
 - * 걱정 필요량은 5.5일분이나, 13일 현재 3일분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
 - 황 총리도 직접 헌혈에 참여하려고 했으나, 최근 말라리아 발생 지역(15.12.13-15 라오스) 해외 순방을 다녀와, 이루어지지 못했으며, 대신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동 대강당을 찾아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총리실 직원(참여인원 110여명)들을 격려했다.
- 황 총리는 “최근 혈액부족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총리실 직원들이 적극 나서서 든든하다”면서,
- “헌혈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으로,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혈액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”고 말했다.
- 한편, 이번 총리실의 단체헌혈에 따라,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는 다른 중앙 부처들도 단체헌혈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